



# 7월의 양돈관리 포인트

**7월**의 양돈관리는 그 기본적인 관리의 틀을 일반적인 여름철 관리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여름철 관리 대책은 본지 6월호에 이미 소개를 하였으니 참고하기를 바라며 이번 호에서는 좀더 세부적으로 여름철에 특히 문제될 수 있는 질병관리에 대해 소개하기로 한다.



이재춘 원장

(한별 피그 클리닉, 한국양돈컨설팅그룹)

## 1. 대장균 감염증

대장균 설사는 자돈의 환경온도가 30도인 경우보다 25도 이하인 경우 증상이 더욱 심하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실제 여름철에도 발생빈도가 높는데 이는 고온 다습한 환경 하에서 병원균의 증식이 왕성해질 뿐만 아니라 모돈의 체력저하로 인한 무유증과 유질불량에 기인한 면역항체성 전염 기회도 증가하므로 감염의 기회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

### <예방대책>

1) 분만들의 수세, 소독을 철저히 한다(최근 분뇨처리 어려움 때문에 분만들 뿐만 아니라 빈 돈방의 수세가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는 농장이 많은데 이러한 농장의 경우 좀처럼 치료가 되지 않는 악성 질병으로 상당한 고전을 하게 된다).

2) 분만들이 습하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해 준다.

3) 번거롭더라도 입질사료는 소량씩 자주 급여한다.

4) 모돈의 고온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관리가 중요하다(특히 무유증 예방이 관건임).

5) 모든 사료에 예방적 항생제 투약.

6) 분만사 시설 및 조산기구의 소독, 음수소독.

## 2. 살모넬라증

살모넬라증은 보통 보균돈이 스트레스를 받아 증상이 발현하기도 하나 여름철에는 특히 사료와 음수를 통해서 전염이 된다. 일반적으로 포유자돈에서의 발병은 드물고 주로 이유~5개월령 사

〈표1〉 돼지의 성장단계별 적정 사육 밀도

단 계	두당 최소소요 면적(m <sup>2</sup> ) (전면 슬랏인 경우)	돈방당 수용두수
분만틀(포유돈+자돈)	3.3	-
이유자돈	0.3	20두 이하
육성돈	0.5	"
비육돈	0.8	"
임신돈	1.4	-
응돈	7.0	-

이에서 다발한다. 보통 이유 후 이동과 합사, 밀사에 의한 스트레스, 그리고 오염된 물과 사료에 의해 패혈증형과 장염형 두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 〈예방대책〉

- 1) 스트레스 요인을 줄이는 사양관리 체계 구축(특히 밀사 방지)
- 2) 신선한 사료급여에 관심을 기울인다.(또한 사료 입고시 제조일을 확인한다)
- 3) 노쇠한 급수배관의 보수, 교체 및 급수시설의 청소와 소독
- 4) 항생요법 → 이유키 또는 돈사 이동시 최소 7일간 최대 농도로 음수 또는 사료첨가



▲고온환경하에서는 모돈의 체력이 저하되고 내분비 기능에 장애가 생겨 분만사고가 많이 나타난다.

### 3. 삼출성 표피염

주로 4일령에서부터 35일령 사이에서 다발한다. 원인균은 연쇄상구균이며 초기 증상은 복부와 사지의 안쪽으로 작고 붉은 점상반점이 포유자돈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 후 증상은 급속히 경과하여 피부전체가 붉어지고 삼출물이 분비되어 피부전체가 검은 기름을 덮어 쓴 것처럼 변하게 되며 그대로 방치할 경우 결국 탈수로 인해 폐사하게 된다.

### 〈예방대책〉

- 1) 여름철 고온다습으로 인해 피부저항력이 약해져 발생률이 높으므로 소독을 자주 하는 등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예방할 수 있다.
- 2) 분만틀을 청결히 관리한다(특히 습하지 않게 해준다).

### 4. 모돈의 분만후 저유증후군(무유증)

대개 분만 후 3일 이내에서 발생한다. 고온환경하에서는 모돈의 체력이 저하되고 내분비 기능에 장애가 생겨 분만사고가 많이 나타난다. 따라서 화농균의 증식이 활발하여 자궁내막염의 발생률이 높아지는 관계로 분만 전후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주원인〉

- 1) 분만전후의 스트레스
- 2) 임신말기 고영양사료의 과급
- 3) 음수량 부족
- 4) 분만틀 위생관리의 부실
- 5) 유방염 및 자궁내막염

### 〈증상〉

1) 모돈 : 침울, 식욕부진, 수유거부, 발열(열이 없는 경우도 있다), 변비, 유방부종, 유방의 상처 등.

2) 자돈 : 신생자돈 설사, 심한 포유투쟁(특히 3일령 이내에서), 자돈의 얼굴 및 다리에 상처, 활력저하, 젖빠는 횟수 감소, 허약자돈 다발, 압사를 증가 등

#### 〈예방대책〉

- 1) 모돈사료 급여량 준수 및 분만사 위생관리 강화
- 2) 분변에 의한 유방 감염을 최소화 한다.
- 3) 분만유도제의 활용
- 4) 8산 이상의 노산돈 계획 도태

### 5. 모돈의 유사산

#### 〈유사산의 원인〉

1) 감염성 유사산 : 일본뇌염, PRRS, 오제스키 병, 뇌심근염 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병원성 미생물의 감염에 의한 유사산.

2) 비감염성 유사산 : 영양적, 물리적, 유전적,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경우와 곰팡이 독소에 의한 유사산으로써 특히 여름철 고온환경 하에서 빈발한다.

#### 〈예방대책〉

1) 기본백신의 접종(일본뇌염, 파보, 돈콜레라, 돈단독, 그리고 선택적으로 오제스키와 PRRS 백신의 접종도 고려한다)

2) 무분별하게 돼지 구입을 하지 않는다.

3) 노산돈의 계획 도태로 7산차 이상의 모돈 비율을 낮춘다(10% 이내로)

4) 환경적인 스트레스 요인을 최소화 한다(특히 방서 대책에 중점을 둔다)

5) 하절기 모돈 체력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영양소 추가 공급

6) 소독 강화

### 6 자궁내막염

#### 〈증상〉

1) 주로 교배 후 15~22일 사이에 크림상의 분비물을 다량 배출한다(재발주기와 관련됨).

2) 분만 후 2~3일간 질 외부로 농이 배출된다.

#### 〈원인〉

1) 비노기계의 질환이 있을 때(모돈의 음수섭취량이 만성적으로 부족할 때)

2) 분만시 또는 교배시 산도의 상처로 인한 염증

3) 무리한 조산 및 비위생적인 교배

4) 병원균에 심하게 오염된 불결한 돈사

5) 웅돈의 위생관리 부실

6) 노산돈이 많을 경우

#### 〈예방대책〉

1) 노산돈 및 문제돈의 갱신

2) 웅돈의 포피 소독 및 웅돈방의 정기적인 소독

3) 임신사의 청소, 소독 강화

4) 위생적인 교배(교배전 음부 세척 및 일회용 장갑 착용 등)

5) 모돈에 충분한 음수 공급을 위한 급수기 점검

6) 모돈 및 웅돈에 광범위 항생제를 클리닝 실시

7) 분만 후 질 및 자궁세척, 항생제 자궁내 주입

### 7. 돈단독

돈단독은 세균성 질환으로써 패혈증형, 피부형, 심내막염형, 그리고 관절염형의 네 가지 형태로 발현이 된다. 돈단독균은 30도~37도의 온도에

서 증식이 활발히 되므로 여름철 고온 환경 하에서 발병률이 높다. 주로 90일령 이후의 육성돈에서 발생이 많으며 특징적인 증상으로 피부에 다이아몬드형 붉은 반점이 나타난다. 간혹 백신접종이 안 되는 농장에서는 모돈에서도 발생한다.



▲강한 햇빛에 장시간 노출이 될 경우 일사병의 위험이 있으며 또한 주위 온도의 상승으로 체온조절이 어려울 때 열사병이 발생된다.

### (예방)

- 1) 생균백신 접종
  - 육성돈 : 1차 50~60일령, 2차 70~80일령
  - 후보돈 : 선발직후
  - 모돈, 웅돈 : 연 2회 접종
- 2) 생균백신이므로 항생제와 함께 접종하면 효과가 없다.

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상황으로써 성돈 뿐만 아니라 비육돈에서도 발생한다.

## 8. 일사병 및 열사병

강한 햇빛에 장시간 노출이 될 경우 일사병의 위험이 있으며 또한 주위 온도의 상승으로 체온 조절이 어려울 때 열사병이 발생된다. 여름철 더

### (예방대책)

- 1) 시원한 시간대에 돼지 이동 및 교배
- 2) 직사광선 차단, 온습도 조절 등의 환경관리 철저
- 3) 상비약품을 구비한다 : 강심제, 해열제, 진정제, 링계수액 등

<표2> 돼지의 최적온도와 습도

일령, 체중	최적온도(°C)	최적습도(%)
출생당일	35	60~80
2일령	33	"
3일령	31	"
4일령	29	"
5일령	27	"
6일령	25	"
7일령	23	"
체중 30kg	21	50~70
체중 45kg	16	40~60
모돈, 웅돈	16	"

## 9. 기생충 감염증

여름철에는 모돈 및 후보돈의 방목과 청초 급여로 인한 기생충 감염 기회가 증가하므로 내외부 구충을 철저히 한다.

이상으로 여름철에 문제시될 수 있는 대표적인 질병들에 대한 예방대책을 알아보았다. **養豚**